

교회 목표

1. 천국일꾼을 키우자
 2. 우리 세대에 민족 복음화를 이룩하자
 3.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간 중 헌

발행인 : 신성종
편집인 : 윤명식
편집국장 : 손경수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중 헌 교 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 552-8200 FAX :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1992년도 목회 지침 표어: 민족을 위한 제사장 교회가 되자 주제성구: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눅14:23)

제6회 교구찬양대회 개최

4월 5일 오후 3시 20분 본당서
교구 식구들의 한 마음, 기쁨과 감사 표현키로

교구위원회(위원장 손동운 장로)가 주관하는 제6회 교구찬양대회가 오는 4월 5일(주일) 오후 3시 20분부터 본당에서 개최된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생활의 습성을 배양하고, 교구 식구들이 한 마음과 한 정성으로 기쁨과 감사함을 표현, 단합과 친교, 영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되는 이 찬양대회는 예년과 달리 주일 오후에 실시하고, 지정곡 없이 찬송가 중에서 한 곡을 자유로 선택하여 편곡없이 3절

을 부르는 것이 특색이다. 합창과 중창으로 구분하여 갖게 될 찬양대회는 심사 기준으로, 합창의 경우 참가 인원이 120명 이상이 되어야 하고 남녀 구성 비율도 3:7이며, 50점 기준의 태도에서 예배 시작 10분 전까지 입장해야 하고, 입·퇴장 시 질서 유지, 얼굴 표정, 간편한 복장, 대회 끝까지 남아 있는 성도수, 그리고 100점 기준의 음악성에서는 화음, 박자, 음정, 가사 암송, 가사 전달, 음악적인 표현 능력을 주로 심사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에는 교구찬양대의 복장은 간편하고 화려하지 않게 단정한 정장 또는 평상복으로 하고 모자, 스카프 등 악세사리는 일체 금하기로 했다.

대회 당일에는 모든 지휘 활동 및 각 부 활동은 중지하고 찬양 대회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또 중창팀 구성 요건은 8~16명을 원칙으로 하되, 대회 일주일 전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팀에 한해 참가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남녀전도회 헌신예배

3월 1일 찬양예배 시 본당서

전도위원회(위원장 최상규 장로)는 남녀전도회 헌신예배를 3월 1일(주일) 저녁 찬양예배시

본당에서 갖기로 했다.

이날 찬양은 남녀전도회 회장단 및 전도위원들이 담당하기로 했다.

수도노회 주련
총대 파송
제1교육위 소속 7명

제1교육위원회(위원장 송기홍 장로)는 수도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총회에 파송할 본 교회 총대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송기홍 장로(제1교육위원장), 정광호 장로(영아부장), 최성현 장로(고등부장), 박영식 장로(중등2부장), 김필수 전도사(초등1부 지도), 양종섭 집사(초등4부 부감), 김단용 집사(중등3부 부감)

수도 남전·여전
총대 파송
전도위원회서

전도위원회는 수도노회 남전도회와 여전도회에 총대를 파송키로 하고 연합 사업에 함께 동참키로 했다.

▲남전도회 총대: 최상규 장로(전도위원장), 박상준 집사(동위원회 서기), 이하영 집사(전도부 차장), 김여순 집사(특수 전도부장), 안성영 집사(바울협의회장), 강봉수 집사(베드로협의회장), 신광철 집사(요한협의회장)

▲여전도회 총대: 마리아 송정순 집사 외 33명, 루디아 이수자 집사 외 33명, 에스더 양선자 권사 외 33명, 한나 박옥식 권사 외 34명

92년도 상반기
장학생 선발

장학회(회장 김의철 장로)는 1992년도 상반기 장학생 선발을 확정하고 당회의 승인을 얻어 장학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장학회가 마련한 장학금 종류는 충헌장학금(대학생 14명, 고등학생 7명, 중학생 12명, 장애아동 조기교육센터, 선교사 자녀 장학금 2명), 소석장학금(대학생 15명, 전도사 1명), 신학원생 장학금(10명), 사랑의 장학금(강남구청에서 추천한 대학생 10명), 위탁장학금 3명 등이다.

직능전도부원모집

전도위원회는 직능별 활성화를 위하여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성도들의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아래 직종에 종사하시는 성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대상: 금융, 경찰, 체육, 예술, 메스컴에 종사하는 성도
- 일시: 3월 8일(주일) 낮 12시 30분
- 장소: 선교관 405호

성경연구원 개강예배
3월 3일 저녁 7시 베다니홀

성경연구원이 3월 3일(화) 저녁 7시 베다니홀에서 개강예배를 드린다.

5월까지 진행되는 교사양성부, 찬양대원양성부, 주간성경공부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기를 바란다.

세계선교위원회(위원장 남선우

LA충헌선교교회와
형제 결연

장로)는 LA 충헌선교교회(정상우 목사 시무)에서 본 충헌교회와 형제 교회 결연을 요청함에 따라 이를 당회에서 승인 받아, 형제 교회로서 유대를 갖기로 했다.

70인 전도대
“충헌전도대”

당회는 현재 전도위원회에서 운영중인 70인전도대 명칭을 “충헌전도대”로 변경하여 운영키로 했다.

이는 92년 목회 방침에 의한 교인 배가 운동을 효율적으로 집행키 위한 조치이다.

세계선교훈련원
간담회 가져

충헌세계선교훈련원은 지난 2월 25일(화) 선교관 406호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당회장 신성종 목사, 김창수 목사, 윤명식 장로, 정하우 장로, 남선우 장로, 양종섭 집사, 현재 강의에 참여하는 분들이 참석한 이 간담회에서 선교훈련원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선교 훈련과 교육 방향, 평신도 선교사의 활용 방안, 개교회 선교 협력 방향, 선교사 지원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함께 토의하였다.

충헌프리즘

◎...3월 1일은 주일이면서 3·1절 제73주년 기념일이다. 일제 36년 동안 억압받고 나라를 빼앗기고 참혹한 생활을 했던 우리 선열들의 나라 되찾기 운동은 죽음을 각오한 것에서 그 의미가 대단하다.

특히 기독교인들의 “나라 사랑”은 돋보였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고선언포하면서 파고다 공원에서 목이 터져라 “만세”를 부르고 옥살이를 하며 순교까지

당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신사 참배를 강요하고, 교회당을 불지르고, 예수 믿는다는 하나의 이유 때문에 무차별 박해와 죽임을 당하는 역사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생활이 안정되었다고 해서 치욕의 일본을 우상화하고 모방하는 일부 출세주의의 무분별한 행위를 그냥 보고 지나쳐서는 안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한국인의 민족혼을 그들에게 자신 있게 보여줄 때가 왔다.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많은 양에 대하여” 그리고 “용서에

대하여” 간결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한 마리 잃은 양을 위하여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과 열흔 번째 일곱 번째라도 용서해주라는 사랑의 실천 내용이 다. 비록 목자가 실수하여 목장을 떠났다 할지라도 목장에 남아 있는 양떼들을 모아 진실된 목자의 인도를 받도록 해야하고, 잠시 우리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간 떼들의 귀속을 다시 올 때 그들을 정죄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용서와 사랑으로

반갑게 맞이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우리 충헌교회 성도들은 자기 몸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숭고한 사랑과 가르침을 힘껏 실천해보자.

◎...제난 주간은 제1교육위원회 각 부서가 겨울수양회를 개최하여 많은 어린 영혼들이 말씀 공부와 기도 생활을 했다.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도 허락하시어 아무런 사고없이 잘 끝났다. 수고한 모든 교사들에게 주님의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충현강단

신성중 목사

성령계 합당한 생활 1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엡4:17~24)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용서를 받습니다. 한편 성령님을 통해서도 조금씩 성화되어갑니다.

1. 이방인의 생활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활이 얼마나 비참하고 잘못되어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방인들의 생활에 대해서 일곱 가지 특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엡4:17)

첫째, 이방인들은 허망한 것을 따라갑니다.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엡4:19)

다섯째, 이방인들은 감각이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감각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다. 마비된 사람은 감각이 없습니다. 또 죽은 사람도 감각이 없습니다. 살아 있을 때는 조금만 추위도 난로를 피워달라고 하면서 금방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던 사람을 죽어서 추운 겨울에 그 시신을 밖에 놔두어도 춥다고 하지 않습니다. 뽕뽕 언 무덤 속에 묻어 두는데도 팔이 없습니다. 화장을 하는 때도 뜨겁다고 한 마디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죽은

사람들은 일생 동안 실질적으로 기록해 집니다. 어떤 때는 한 길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때는 두 길을 진전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죽는 날까지 조금씩 조금씩 기록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죽는 순간 완전히 기록해 집니다. 이런 세 단계를 거치면서 기록해진 후, 주님 앞으로 들려올림을 받습니다.

3. 성화의 방법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엡4:21)

성화는 세상의 윤리나 교양을 듣고 배우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듣고 가르침을 받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성화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둘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성령이란 “기록한 영”이라는 뜻도 있으나 “성결의 영”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거룩하게 합니다. 셋째, 성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요17:17). 그러므로 성도들은 부지런히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저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지가는 구슬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엡4:22)

먼저 성화되기 위해서는 벗어버려야 합니다.

입고 있는 옷이 더러워지면 벗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땀냄새, 때냄새로 인하여 계속해서 입고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주관적 근거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연결되어서, 아담부터 내려오는 마음속의 더러운 죄악들을 모두 씻어줍니다.

더러운 것은 물로 닦아내면 깨끗해 집니다. 물로 깨끗해지지 않는 것은 비누물로 닦으면 깨끗해 집니다. 그러나 물과 비누로도 깨끗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인간의 심령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밖에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믿음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깨끗하고 거룩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심령은 믿음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엡4:24)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린 다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은 거듭난 사람만이 입을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따라 모든 일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의에 의해서만 의롭게 됩니다. 새 사람의 특징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과 분리되었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예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에크’는 ‘무엇으로부터’라는 말이고 ‘클레시아’는 ‘불림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세상으

유혹의 욕심에 의한 옛 생활을 과감히 떨쳐 버려야

허망하다는 것은 방향이 없다는 말입니다. 방향없이 바람부는 대로 저들은 행합니다. 다람쥐가 부지런히 채바퀴를 도는 것처럼 바쁘게 생활하지만 항상 제자리 상테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엡4:18)

둘째, 이방인들은 총명이 어둡습니다.

이방인들은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학까지 나왔다는 사람이, 과학을 공부했다는 사람이, 심지어는 대학 교수가 돼지 머리 앞이나 돌덩어리 앞에서 복을 달라고 절을 합니다. 저들의 총명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우등생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총명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국한학교를 나오지 못했어도 우상 앞에서 절하는 이리색은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셋째, 이방인들은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굳어진다는 말은 마비된다는 것입니다. 팔이 마비되면 걷지 못합니다. 팔이 마비되면 열할 수 없습니다. 심장에 마비되면 죽습니다.

넷째,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생령에서 떠나 있습니다.

생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자들입니다. 실었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사람은 팔이 없습니다. 감각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죽은 실령입니다.

여섯째, 이방인들은 방탕합니다. 그들은 향락주의, 퇴폐 산업에 빠져서 헤이날 줄 모릅니다.

일곱째, 이방인들은 더러운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는 어진 마음(양심:良心)은 없고, 두 마음(양심:兩心)만 있습니다.

2. 성화의 과정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엡4:20)

성경 원문에는 본문 20절 “오직”이라는 말 앞에 “그러나”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의 생활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불신자들의 생활 중 어느 하나라도 배워서 안 되겠습니다.

21절 이하에는 성화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세 번 기록해 집니다.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믿게 되었을 때 원리적으로 기록해 집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적으로는 아직 기록해진 단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리적으로 기록해진 사람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집일조 헌금이나 전교헌금,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이런 원리적 성화는 칭의(稱義)가 이루어질 때,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때 이루어 집니다. 원리적으로 기록해진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심령이 새로워지는 삶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인격과 지식과 모든 것이 더럽고 추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안고 있는 옛사람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옛사람은 식욕, 성욕, 소유욕, 명예욕과 같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지가는 구슬을 쫓아 살기 때문입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엡4:23)

우리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심령, 즉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단계에는 객관적 단계와 주관적 단계가 있습니다. 객관적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

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께로부터 불림을 받은 사람들에게 태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록하니 너희도 기록할지니”(레11:45) 하나님께서는 구별되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도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변화되어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께 닮아 거룩한 존재들이 되어 성령계 합당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

“우리는 여기에 우리 조선이 독립된 나라인 것과 조선 사람이 자주하는 국민인 것을 선언하노라.

지금부터 73년 전인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를 기하여 손병희, 김선주, 이승훈 등 각계의 대표자 33인이 서울 인사동에 있는 태화관에 모여서, 독립선언식을 거행할 때 선포된 독립선언문의 서두이다.

3·1운동은 한민족의 역사중 특히 근대사에 있어서 민족의 정신적 근원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역사의 한 장이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마땅히 민족과 겨레를 뜨겁게 사랑하고픈 열정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 역사에 선언한 정신적 백이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입각하여 바라볼 때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민족적 첫 열매가 3·1운동임을 알게 되어 신앙인으로서 긍지와 삶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과거와 오늘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이 민족을 사랑하고 역사를 깨닫게 해준다.

2.

당시 총독부의 3·1운동에 관한 통계에 의하면, 불과 3개월 동안에 전국 217개 시·군에서 1,542회에 걸쳐 205만명이 참가하였다. 이에 따른 한국측 피해는 피살 인원 7,509명, 부상자

충현논단

3·1운동과 기독교의 역할



이홍성 목사(제17교구 지도)

15,961명, 검거 투옥인원 46,948명, 불탄 건물은 교회 47개소, 학교 2개소, 민가 915호에 달하였다. 반대로 총독부측 피해는 166명의 관헌이 피살되었고, 149개소의 건물이 파괴되었는데 그 내용은 변사부소 47개소, 헌병대 3개소, 경찰관서 28개소, 기타 71개소이다.

3·1운동을 사회학적 입장에서 분석하면, 이 운동은 비록 33인의 민족대표가 그도화선을 마련하였지만 그것을 이끌어간 주체 세력은 농민이었고, 여기에 교사와 학생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도시 상공업자와 노동자가 협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운동은 한반도 전역에서 일어난 범민족적 운동이었다.

그러면 이러한 민족적 거사에 있어서 정신적인 영향력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당시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33인은 기독교·천도교·불교 등의 종교단체에 관련되어 있음을 볼 때, 그것은 인간의 삶을 이끌어 가는 종교임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기독교의 정신적 영향은 단연코 3·1운동의 주체 세력이 되었고 그

엄청난 폭발의 핵심으로 나타났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기독교의 영향은 운동의 참여와 피해에 있어서 광범할 만하다. 33인의 민족대표중 16인이 목사나 장로이었으며, 1919년 10월 현재 체포된 기독교인이 3,804명, 체포된 목사·장로가 134명, 사살당한 자가 41명, 불에 탄 교회가 47개소, 부분 파괴된 학교 2개소는 모두 기독교 경영 학교이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화성 제암리에서는 일본 헌병중위 아리다(有田俊夫)의 지휘로 30여명의 교인들이 예배당 안에 갇힌 채 모두 타죽는 처참한 살육극이 자행되었음은 기독교인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감을 입증해준다.

3.

3·1운동에 대한 기독교의 역할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것은 복음이 민족을 깨닫는 일에 앞장서 신앙과 삶이 일치됨을 역사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3·1운동은 1907년의 대부흥운동의 화려한 개화이었다. 1907년의

대부흥운동은 한국 교회가 국민적 기골(氣骨)로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축적된 에너지가 전국 예배당과 교인들을 중심으로 폭발한 것이 3·1운동이다.

평양의 김선주 목사와 원산의 채정민 전도사에 의해 요원의 불길처럼 번지기 시작한 1907년의 대부흥운동은 기실 이 해 1월 14일 토요일 평양의 장로교·감리교 연합 부흥회에서 윌리엄 뉴튼블레이 목사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봉독하는 그 순간, 신비스럽고도 압도적인 성령의 충만한 임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당시 런던 타임즈는 “흠뻑 밀어 닦지는 강대한 성령의 힘이 임재하심에 압도당했다.”고 보도했다.

평양과 원산에서 격류처럼 터지기 시작한 대부흥운동은 서울, 정주, 목포 등 대도시로 파급되었고 이어서, 방방곡곡으로 힘차게 분출되었다. 그리하여 교회는 모든 한민족의 소망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1910년 경술국치로 나라를 잃게 되면서 그리스도인을 현실의 불행과 좌절을 극복하는 지혜를 열정적인 부흥회와 경건주의적 신앙 생활을 통해 얻게 되었다. 그리하여

3·1운동이 방방곡곡 교회들을 중심으로 하여 번진 내재적인 힘이 1907년의 부흥운동을 기점으로 축적되기 시작하였고, 그 최초의 한방울 물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떨어진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한 위대한 선언이 3·1운동을 폭발시킨 원동력이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개개인 성도들의 인격적 관계의 개념에서 더 발전하여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고 나아가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공동체 의식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 현장에 뛰어들게 된 것이다. 그것이 3·1운동으로 드러난 것이다. 당시 전 인구의 약 1.6~1.7퍼센트에 불과한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역사의 주체 세력이요, 계도자였음은 복음의 정신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를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것이다.

4.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이끌어 가는 것은 정신이다. 3·1운동이 단순한 역사의 산물이 아니라, 당시의 기독교의 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제 기독교는 민족의 정신만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역사에 책임을 가져야 한다.

바라기는 1992년 3월을 맞이하면서 한국 교회가 꺼지지 않는 민족의 양심이 되어 21세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장로칼럼

교회 탐방과 전도 활동



최상규 장로(전도위원장)

전도위원회의 책임을 맡겨 주심으로, 사실 적지 않은 고심을 했다.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울 수 있을까? 우리가 가진 지식을 동원하고 자료를 조사해 보아도 만족할 만한 해답을 얻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엮드려 호소하였다.

그러던 중 무엇보다 먼저 부흥 성장한 다른 교회들을 탐방하면서 겸허한 자세로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1월부터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을 돌면서 한 교회, 한 교회를 보고 배움이 많았다. 그럴 때마다 점점 더 기대 이상의 도전을 받게 되었으며 동시에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되었다. 작은 교회들이 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전도 전략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교인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모습, 기도의 열기를 복돋우면서 초대 교회처럼 교제하는 모습, 예배 시간에는 빈 자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꽉 차는 모습, 그래서 ‘교회당 건축을 하기는

해야 할 텐데’ 하는 즐거운 걱정을 하는 모습, 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였다. 어떤 교회는 목사님의 메시지부터 구역 교제, 교회학교의 방향, 훈련 내용 등 모든 것이 “전도”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모이면 나아가 전도하고 밤 늦게까지 성경을 배우고 토의하고 있었다.

그 동안 우리는 좋은 위치, 넓은 공간, 훌륭한 시설을 갖춰놓고 마치 손님을 기다리는 가게 주인의 심정으로 자리가 채워지기를 기대하고만 있지 않았는지. 그들은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 서로 거칠은 들판의 감초처럼 강한 자생력이 있었다.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해서 내 집을 채우겠다는 열정이 대단하며 뜨거웠다.

나는 확신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적인 조건을 갖추게 하신 데는 놀라운 뜻이 있을 것이다. 우리 교회를 들어 쓰실 분명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예수’의 생명이 아니고는 채워지지 않는 갈급한 심령들이 너무나 많이 방치되어 있다. 교회 주위에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방황하고 있는가. 또한 휴전선 너머 북녘땅에 있는 내 동포들도 생각해 보자. 북한에 문이 열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누가 가야 할지 전략을 수립하고 힘을 길러야 한다. 때가 시급하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때이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복음의 본질을 희석시키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모든 인간적인 요소도 청산해야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슴으로 모두를 포용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

이 모든 일을 하는 데는 교회 성장의 전략, 제도와 조직의 정비, 프로그램의 개발도 중요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언제나 ‘사람’이다. 사람들이 변화되어야 한다. 사람들 중에서도 책임을 맡은 일꾼들이 변화되어야 한다. 이들부터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뜨거워진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주실 것을 확신한다.

그 동안 우리는 우리의 죄악과 실재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며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보았다. 더욱 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기도 운동이 일어나서 서서히 온 교회로 퍼져나아가고 뜨거워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신 것이다. 올해는 무엇보다도 모여서 기도하고 진리 가운데 능력 받아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고 교회 성장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쓰고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몸되신 충현교회 위에 크신 은혜와 능력 주시어 하늘 뜻을 이루시며, 교회 성장과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어 만민 앞에 세워주시며, 쌍무지개의 약속을 이루어주시기를 확신한다. 하나님 앞에 더욱 더 아름다운 보고서를 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다음호 칼럼은 김영개 장로님께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 공부"라고 하면 거부감을 느껴거나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배우는 것으로 생각한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포기하기도 한다.

세상에 갓 태어난 어린아기가 자연스럽게 젖을 원하듯, 거듭난 영혼도 그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마음이 담겨 있는 성경을 몰라서는 그분의 뜻대로 살 수 없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왜 성경을 배워야 하는가?

1. 성경은 우리를 죄짓지 않게 하며 삶의 지혜를 준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경우를 만나든지 성경 말씀을 내 마음에 둔다면 죄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이미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옳고 그름의 판단에 혼란을 일으키게 된다. 신앙 생활의 기본이 되는 규범은 오직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2.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

한다. 육신적인 나이가 10살이든지 50살이든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바로 그 때가 하나님의 어린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때이다. 영적 아이가 영적 음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먹고 잘 소화시킬 때에만이 튼튼하게 자랄 수 있다. 예수를 5년, 10

우리는 세상에서 온갖 걱정과 근심에 싸여 살고 있다. 이 걱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전도는 곧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몰라서는 전도할 수가 없다. 전령터에 나가는 군인이 총을 가지고 가지 않고서는 전투를 할 수 없는 이치와 같다.

올해는 우리 교회의 목표가 "교회 배가 운동"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바로 그 무기

곧 성경을 해석하고 바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이다. 사랑도, 봉사도, 구제도, 가르치는 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야 한다. 성경에 어긋난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요, 성경에 어긋난 구제도 잘못된 구제이고, 더욱이 성경에 어긋난 가르침은 이단이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린이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성경을 잘 알아야 한다.

7. 성경을 통해서 성공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

세상에 성공하기를 좋아하는 자가 어디 있겠는가. 성경에 그 비법이 나와있는 데도 사람들은 영안이 어두워 보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않는 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참 성공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몰라야 한다. 재물, 명예, 권세, 건강이 있어서 성공이 아니라 주 안에서 그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가 그 기준이다.

사랑하는 충현의 성도 여러분! 젖만 먹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란다.

• 성경연구원 개강에 즈음하여 •

왜 성경을 배워야 하는가

이조웅 목사(성경연구원지도)



년 믿었다고 해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고(배우고) 운동(봉사)해야 건강하게 자란다는 것이다. 성경은 한 마디로 몸을 위한 젖이며(벧전 2:2), 성장하는 성도에게는 고기이며(히 5:12-14), 배고픈 자에게는 떡이고(요 6:51), 즐거 먹는 자에게는 꿀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마 4:4)고 하셨다.

3. 성경을 통해서만이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주는 기쁨과 달라서 계속적인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

4. 성경을 배우고 그대로 생활하는 자에게는 그가 원하는 기도가 이루어진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읽고 배우고) 그리고 난 다음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기도)이다.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된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기도의 응답을 받기 원한다면 성경을 배우고 그대로 생활해야 한다.

5. 성경을 배워야만 전도를 할 수 있다.

이다. 그러나 무기(성경)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무기를 쓸 줄 알아야 한다. 바로 성경 공부는 이것을 배워 주는 것이다.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했다. 우리는 이 검을 가지고 사탄의 권세를 이겨 많은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

6.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가르칠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꾼이 아닌 인정받는 일꾼의 조건은

중등 각 부 주일 오후 집회 가져

중등1, 2, 3부는 매주 토요일 오후에 연합으로 드리던 찬양 집회의 시간과 프로그램을 변경하였다.

중등2부(부장 박영식 장로, 지도 김학진 목사)는 91년도부터, 중등3부(부장 엄필성 장로, 지도 김태준 목사)는 2월 첫 주부터 주일 오후 집회를 갖고 있으며, 중등1부(부장 차신득 장로, 지도 김희수 목사)는 오늘부터 매주 주일 오후로 그 시간을 바꾸었다. 집회 내용도 찬양, 설교, 그룹 성경 공부, 부서 활동 등으로 더욱 다양화되었다.

청년1부 수양회 7일로 앞당겨 개최

청년1부(부장 박승준 장로, 지도 김관관 목사)는 오는 3월 7일(토)과 8일(주일) 이틀 동안 교육관 109호와 514호에서 겨울 수양회를 개최한다.

김해규 목사(청년3부 지도)를 주강사로 모시고 "기독 청년의 영적 무장"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 수양회에서 청소년들이 시대적 요청에 부합되는 주제에 따라 훈련받게 된다.

토요일 결혼예식 폐지 2월 정기당회서 결의

행정위원회(위원장 하대선 장로)는 지금까지 신청에 의해 매주 토요일 오후 1시까지 결혼예식을 거행해 왔으나 3월부터는 이를 폐지하기로 결의했다.

그 이유는 경건한 주일 성수 차원의 주일 준비 관계이며, 일손 부족으로 청소 및 식당 사용이 곤란한 점을 들었다.

교회인사

김정우 목사: 청년2부 지도를 맡고, 교제 편찬위원회 지도로 임명
김창수 목사: 청년2부 지도로 임명
안경소 목사: 제13교구 지도사직
김희수 목사: 제13교구 지도로 임명
김학진 목사: 중등2부 지도로 임명

교회 묘지 사용 안내

교회는 보다 효율적인 교회 묘지 사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사용자격: 1. 본 교회에 전 가족이 등록된 경우 6개월이 경과한 세례 교인
2. 본 교회에 개인이 등록된 경우 1년이 경과한 세례 교인
- 제출서류: 1. 별세자 주민등록등본
2. 별세 진단서
3. 교회 묘지 사용 승낙서
4. 교인의 생전 상반신 탈모 사진
이상의 서류를 준비하여 경기도 광주읍사무소가 가정복지과에 제출하여 매장신고증을 받거나 충현동산 도착 즉시 관리소에 부담금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비용: 1. 매장 - 1구당 백만원
2. 이장 - 1구당 칠십만원
3. 내역 - 비석, 비석좌대, 묘태, 석회, 잔디, 산역비, 관리비

북한 선교를 위한 기도

박상준 집사(제4교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무한히 사랑하시고 보호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우둔하고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39년간 우리 교회를 성장, 발전시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시대적 사명을 따라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원로목사와 당회장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권능으로 함께 하옵소서. 당회원들을 세워주시기를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위하여 앞장서서 일할 때마다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사랑으로 세워주시며 사업임에도 축복하여주옵소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사명을 주셨사오니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얼마 전 있었던 남북한 대표회담에서 1995년도를 통일 원년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앞으로 3년 남았습니다. 슬기롭게 통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 민족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북한 선교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되겠습니다.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루 속히 평양 가서 부흥회하고 백두산 소나무로 무너진 성전 재건케 하여주옵소서. 삼천리 만도 금수강산 곳곳에서 기도와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축복을 허락하여주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 위에 긍휼을 베풀어주시옵소서. 3월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12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지도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일하는 참된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지혜와 슬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의 기도드립니다. 아멘.